

통일부가 입증한 사실, “리호남은 2019년 제2회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없었다”

— 통일부 아태평화대회 출장보고서 입수... 검찰의 대북송금사건은 엉터리이자 조작

이른바 ‘이재명 전 대표 대북송금사건’의 키맨인 리호남이 2019년 필리핀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통일부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 문서에 이어 정부 공식 문서로도 검찰의 공소사실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남북한 간의 교류와 접촉 승인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인 통일부가 ‘리호남이 2019년 필리핀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검찰의 이재명 전 대표 기소는 완전한 엉터리이며, 정치검찰의 기소사실 조작 가능성을 입증한 것입니다.

통일부의 ‘필리핀 「아태평화 국제대회」 종합 결과 보고’ 문서는 대회에 참석한 통일부 직원(당시 사무관 2인)이 작성했으며, 지난 17일 이재강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통일부 장관에게 공식 요청하여 제출받은 것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2019년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참석한 북측 대표단은 총 6명이며, 이 중 ‘리호남’은 없었습니다. 문서 그 어디에도 ‘리호남’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5장짜리 이 문서에는 행사에 참석한 북 대표단의 동향을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그 외 있을지 모르는 참석자의 가능성은 차단하고 있습니다.

24일 북한 대표단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한 시간에서부터 27일 북 대표단이 북경을 거쳐 북한으로 귀환할 때까지 인터뷰, 연회, 회의 등 주요 일정 뿐 아니라, 주요 인사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접촉했는지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실체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검찰은 김성태가 2019년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하지만, 경기도와 통일부 문서, 대회 참석자들 증언에 따르면, 리호남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북한과 필리핀은 비수교국으로, 리호남의 밀입국 가능성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 검찰의 기소사실을 반박하는 증거들을 제시하자,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은 급기야 “리호남은 위장신분을 사용하여 필리핀을 입출국했다”며 사건 조작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수원지검의 주장이 맞다면 리호남은 간첩입니다.

그런 리호남을 김성태와 안부수가 만나 술 먹고 돈까지 줬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며, 검찰은 불고지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수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애초에 검찰이 필리핀 출입국 기록만 확인했어도 쉽게 밝혀질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김성태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삼아 없는 사실로 범죄혐의를 만들었습니다.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정치 공작입니다.

앞으로 사건의 주임검사인 박상용에 대한 탄핵조사 과정에서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대책단은 허황된 대북송금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정치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사건조작 행태를 국민들께 낱알이 공개할 것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4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통일부 문서(2019. 7. 27.) 일부 캡처

필리핀 「아태평화 국제대회」 종합 결과 보고

1 개 요

- 북 대표단 6명*은 필리핀에서 개최하는 일제 강제동원 관련 국제대회 참가 후 귀환
 - * 리종혁(아태위 부위원장), 송명철(아태위 부실장), 조정철(아태위 참사), 박명철(민경련 부회장), 박철용(사회과학원 연구사), 리근명(아태위) 6명
- 체류 기간 : 7.24(수) ~ 7.27(토), 3박 4일
- △비공식 민간단체 면담(7.24) △남북 현장 간담회(7.25) △국제대회(7.26) 참가 등 주요일정 소화

< 「아태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개요 >

- 기 간 : 2019.7.24(수)~26(토)
- 장 소 : 필리핀 마닐라, 콘래드 호텔
- 주 최 : (사)아태평화교류협회·경기도
- 후 원 : 필리핀 전국언론인협회
- 개최목적 : △남북 현장 간담회 △강제동원 진상규명 경과사례 공유, 남북협력 등 네트워크 형성 논의
- 행사규모 : 300여명(남측 159여명, 북측 6명, 해외 120명(중국·일본·태국·인도네시아·호주 등)